

최고이자율 34.9% 넘겨, 高利 쟁기는 대부업체

입력 : 2015.10.05 03:05 | 수정 : 2015.10.05 06:12

[금융 인사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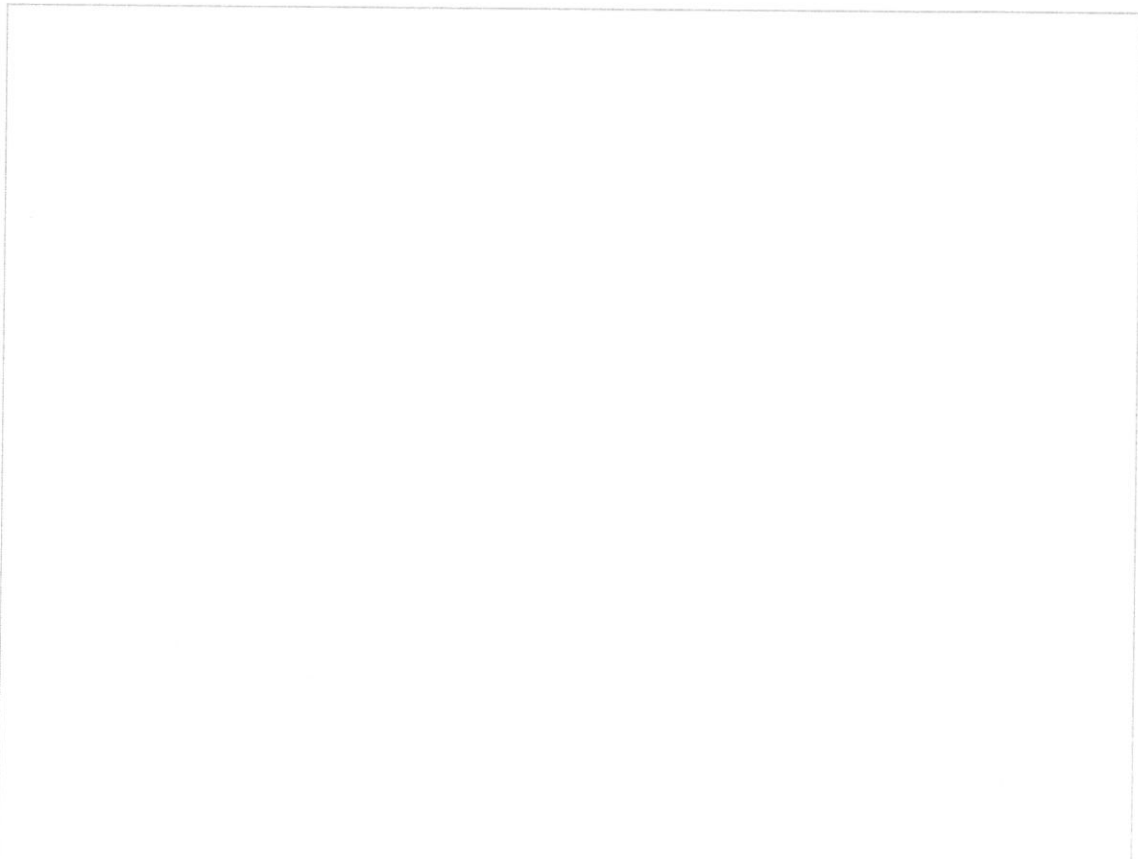
年 39%→34.9% 내렸지만 "금리 바뀌줄 의무 없다"며 과거 금리 적용 수익 올려
만기돼도 문자로만 묻고 자동으로 예전 금리 갱신

자영업자 임모(47)씨는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년 전 최고이자율인 연 39%로 A대부업체에서 대출 500만원을 받고, 최근까지 매달 이자를 16만원씩 냈다. 임씨는 얼마전 지인으로부터 "지난해 법정금리가 연 34.9%로 내려갔는데, 아직 이자를 연 39% 금리로 내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임씨는 대부업체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A사 측은 "만기가 아직 1년 남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줄 수 없다"고 했다.

연 39%이던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지난해 4월 34.9%로 내려갔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평균 대출금리는 연 35%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러시앤캐시·산와대부·애니원 등 규모가 큰 10개 대부업체의 대출잔액 기준 평균금리(6월 말 현재)는 연 35.3%로 나타났다. 업계 1위인 아프로파이낸셜그룹(35.7%), 웰컴대부(36%), 원캐싱(38%) 등 상위 10개 업체 가운데 리드코프(31.2%), 바로크레디트(33.4%)를 제외한 8곳 모두 평균 대출금리가 35%를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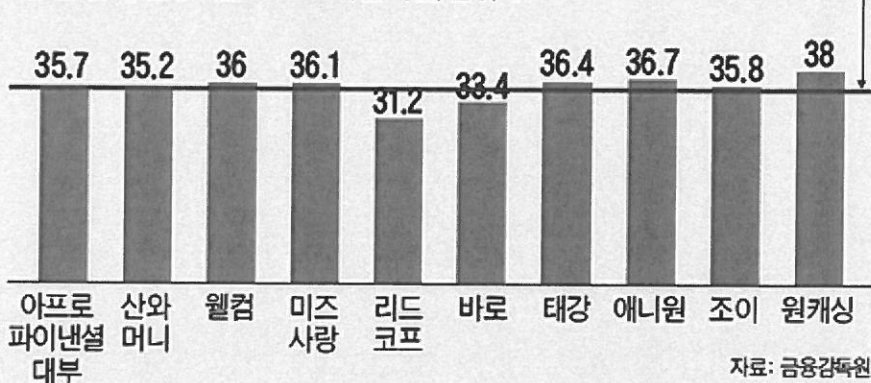
◇만기 3~5년 동안 고금리 이자 받는 대부업체들

최고이자율보다 평균 대출금리가 높은 이유는 대부업체들의 영업 행태 때문이다. 대부업체들은 통상 1인당 400만~500만원의 소액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신용대출 만기를 3~5년으로 길게 잡고, 매달 이자만 내는 일시상환대출만 취급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10개 대부업체 대출 6조2000억원 가운데 약 40%가 최고이자율이 연 39%이던 지난해 4월 이전에 대출해준 것으로,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만기가 자동 갱신된 대출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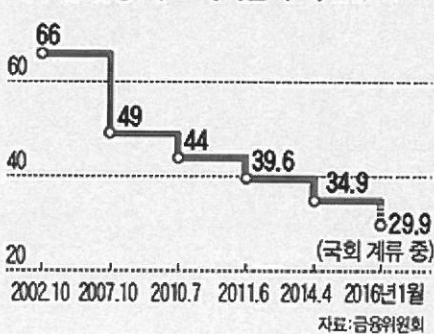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

6월 말 현재, 신용대출 6조2000억원 기준, 단위: %



대부업 법정 최고 이자율 추이 단위: %



서울시 대부업체 숫자 상위 5개 구

올해 6월 말 기준

5개구 1396개(전체의 45.4%)



문제는 대출 만기가 다가왔을 때다. 소비자가 직접 대부업체를 방문해 대출 재계약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문자메시지 정도로 갹신과 재계약을 수동적으로 묻고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대출이 과거 금리로 자동 갹신된다. 300만원을 연 35% 대 이자로 빌린 소비자라면 3년이면 원금 이상의 이자(315만원)를 모두 내고도, 다시 기존 이자로 대출이 연장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고이자율을 인하했음에도 대부업체들의 순이익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상위 대부업체 20곳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5095억원으로, 2009년에 비해 1.6배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인하한 법정금리 이하로 기존 대출을 대환해주라는 방침을 대부업체에 전달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대부업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대부분 하루 벌며 먹고살기도 바쁘고 이자율에도 둔감한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이라 연락이 되지 않는 데다, 만기가 남은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줄 법적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고이자율 낮춰도 정책 효과 나타나지 않아

실제로 대부업체들이 '땅 짚고 헤엄치며' 영업을 하는 이유는 낮은 최고이자율로 과거 대출을 바꿔줄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업 최고이자율은 2002년 이후 4차례 인하됐지만 소급적용 원칙은 법적으로 한 차례 적용됐다. 2007년 최고이자율을 연 66%에서 49%로 낮추면서 기존 대출의 금리를 연 49% 미만으로 바꿔줬다. 그 이후로는 최고이자율이 인하되어도 대출 만기가 돌아오지 않으면 소급적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최고이자율을 낮춰도 정책 효과는 즉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고금리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 낮은 최고이자율을 받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수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프린트 ☞ 닫기